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 의혹 논란

김강열, 무보수 · 명예직 환경단체서 셀프 급여
"정관 위반 임금 받아 잘못, 민 · 형사 책임질 것"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 당시 횡령과 배임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12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진행한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용집 의원은 "김 후보자가 무보수 명예직인 시민생활환경회의(시민사회단체)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급여를 받아 정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6년 가량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총 1억원 가량의 보수를 지급받아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청문회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청문회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민생활환경회의 직원이 15명에서 5명으로 축소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 김 후보자가 아내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했다면서도 규정을 위반하며 자신이 셀프 급여를 책정해 받았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정관을 위반해 급여를 받은 것은 잘못했다"며 "상근 근로자로서 정당한 근로대가를 받은 것이지만 단체에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발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해명했다.

또 김 후보자는 "이사장 급여 책정은 정기총회를 거친 것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단체 운영이 어지간한 중소기업보다 힘들어 아내로부터 차입금을 사용했고 이자는 4.5%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차입 변제금과 자신의 급여를 모두 아내의 계좌에 입금하며 회계처리를 원칙없이 운영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미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신의 급여 1억800만원과 아내로부터 빌렸다는 돈의 변제금을 모두 아내 계좌로 입금하고 활동비 명목의 금액은 자신의 별도 계좌로 넣었다"며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회계처리다"고 비판했다.

나현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사, 공단 등 큰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환경공단 이사장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지적이 있다"고 몰아부쳤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광주지역 자치구에서 생활쓰레기 개선 대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했고, 지난 30년간 여러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일반 기업체 경영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공모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 3명 중 꼴찌인 3위였으나, 면접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사전 내정설 논란이 일었다.

인사특위는 오는 20일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이용섭 광주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정상용(70) 전 국회의원을 환경공단 이사장에 낙점했으나, 광주시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경영능력 부족, 아들 병역기피, 보은인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자진 사퇴했다.

서은홍 기자

고향으로 돌아온 황어 12일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점천교인근에서 바다에서 살다가 봄철 산란기를 맞은 희귀성 어종 황어가 돌아와 산란을 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등 강화…경찰, 종합 대책 추진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이 지난해 44.5%를 기록하고,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22%를 넘어서자 경찰과 관계 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 제도 등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다발지역 관리 강화 ▲신호 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행권 확보 ▲교육·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이 2016년 51%에서 지난해 56%까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1860개소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한 후 횡단보도·무단횡단방지펜스·투광기 등을 확충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사망 사고가 급증하는 10~12월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가로등 점등 시간을 확대한다.

또 위험 구간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연내 노인보호구역 250개소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고령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는 신체 능력을 고려해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점멸신호 축소, 바닥형 보행신호 등 확대 등 신호체계를 개선한다.

노인보호구역 내 고령 보행자 사고를 중과실 항목에 추가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하고,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 갱신 시 체험형 교육 ▲수시적성검사 강화 ▲고령운전자 배려문화 조성 ▲맞춤형 교육·홍보 등을 추진한다.

면허 갱신 시 체험형 '인지능력 자가진단' 교육을 해 스스로 운전을 중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면허시험장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기준 미달 고령자에게 충분한 추가 설명을 통해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수시 적성검사 통보 대상인 치매 외에도 뇌졸중·뇌경색 등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까지 통보 대상을 확대하고, 자기신고·기관통보 외에도 의사·경찰관·가족 등 제3자의 요청으로도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법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은 "올해 추진하는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외에도 신체 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고, 면허 반납 인센티브 및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자격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행안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뉴시스

싱가포르, 보잉 737맥스 이착륙 전면불허

싱가포르 민간항공당국은 12일 157명의 탑승자 생명을 앗아간 추락 사고를 일으킨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싱가포르 내 이착륙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민항 당국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5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보잉 737 맥스 8기가 두 차례나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8 기종은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이륙해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중 추락했고 탑승자 157명 전원이 사망했다.

민항 당국은 이착륙 금지가 12일 오후부터 시작된다며 안전과 관련해 적절하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이착륙 불허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항공 자회사인 실크 항공이 영향을 받게 됐다. 실크 항공은 보잉 737 맥스 8기 6대를 운항해 왔다.

또 싱가포르 노선을 운영하는 중국 남방 항공과 산둥 항공,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 태국의 라이언 항공 등도 영향을 받게 됐다.

이에 앞서 브라질의 골 항공도 11일 밤 8시(현지시간) 자사가 보유한 보잉 737 맥스 8 기종 121대의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골 항공은 그러나 지난해 6월 보잉 737 맥스 8 기종을 첫 운항한 이후 지금까지 3000번 가까운 운항 기록을 갖고 있으며 모두 안전하게 비행을 마쳤다며 이 기종의 안전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멕시코의 아에로멕시코 항공 역시 11일(현지시간) 자사 소속 6대의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저장성 근해서 어선 침몰 12명 실종

중국 동부 저장(浙江)성 근해에서 12일 어선이 대형 선박과 충돌해 침몰하면서 선원 12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구조 당국에 따르면 저장성 선적 어선 자다이위(浙岱渔) 02611이 이날 새벽 1시께 모항으로 돌아가다가 지나던 선박과 부딪혀 승선했던 선원 14명이 바다로 떨어졌다.

오전 8시까지 이중 2명은 구출됐지만 나머지는 행방불명 상태에 있다고 당국은 전했다.

현재 구조선과 해경선, 어선, 구난항공기들이 사고 해역에 출동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고 보고를 받은 저장성 처쥔(車俊) 당서기와 위안자쥔(袁家軍) 성장은 즉각 농업농촌청과 긴급관리청 등 유관 부서에 실종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슬로베니아 여성, 5억원 보험금 노려 자해

21살 된 슬로베니아 여성이 보험 사기를 위해 회전톱으로 자신의 손을 절단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도 루블랴나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친척 1명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손을 절단했다. 이들은 범행 얼마 전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슬로베니아 경찰은 전했다.

이 여성은 손이 절단된 대가로 40만 유로(약 5억원)를 일시금으로 받고 이후 매달 3000유로(약 381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당초 이 여성의 가족 4명을 체포했었지만 2명은 나중에 석방했다. 범행은 올해 초 루블랴나의 이 여성 자택에서 저질러졌다. 이들은 손이 절단된 후 병원에서 나무가지를 자르다 손이 절단됐다고 말했다.

브라질 상파울루 집중호우 12명 사망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최소한 12명이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가장 큰 도시인 상파울루 일대에서 이날 오전부터 3월 예상 강수량의 3분의 1에 가까운 비가 하루만에 쏟아졌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로 곳곳이 진흙으로 막혔고, 수십개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상파울루 메갈로폴리스 외곽 지역의 주책이 붕괴되면서 4명이 사망했고, 타만다티 강이 범람하면서 2명이 익사하는 등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